



# 전북, '식품 창업 메카' 꿈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백승하 과장은 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북도에서는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유치와 판로확보 등 성장의 전 과정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안착을 돕겠다는 전략을 펼친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기존의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를 전면 개편해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을 '투자유치형'과 '매출증대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유치형 기업에는 R&D료 제작, 피칭 교육, MVP(최소 기능 제품) 개발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실전 역량을

도,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 새롭게 도입

투자유치·매출증대형으로 나눠... 실질적 안착 지원

농식품 벤처펀드도 활용... 잠재력 큰 기업에 투자

강화하고, 정부 TIPS(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와 연계해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매출증대형 기업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제품 개선 등 판로 확대와 브랜드 고도화에 집중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도권 등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20개 기업 중 8곳이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유입된 기업이다.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동안 전북에 사업장을 설치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 외 기업의 전북 이주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도 식품제조를 넘어 농생명·바이오 분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버섯균사체 기반 식품 포장재, 반

려동물 식품, 음식배달 외국인 인증 기술 등 첨단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사업 참여 기관도 든든하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에코융합산업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 등 지역 내 주요 창업보육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멘토링과 시제품 개발, 박람회 참가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식품 생산설비·검사장비 구축을 위한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단가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품 생산을 돕는다.

전북자치도는 농식품 전문 벤처펀드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약 420억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성장 잠재력

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전북이 농생명 창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북의 식품제조업은 지난 20년간 성장세를 보며, 2004년 전북도의 식품업체수는 981개사로 전국 1만 7,775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였던 것이 2014년에는 6.6%, 2023년엔 7.0%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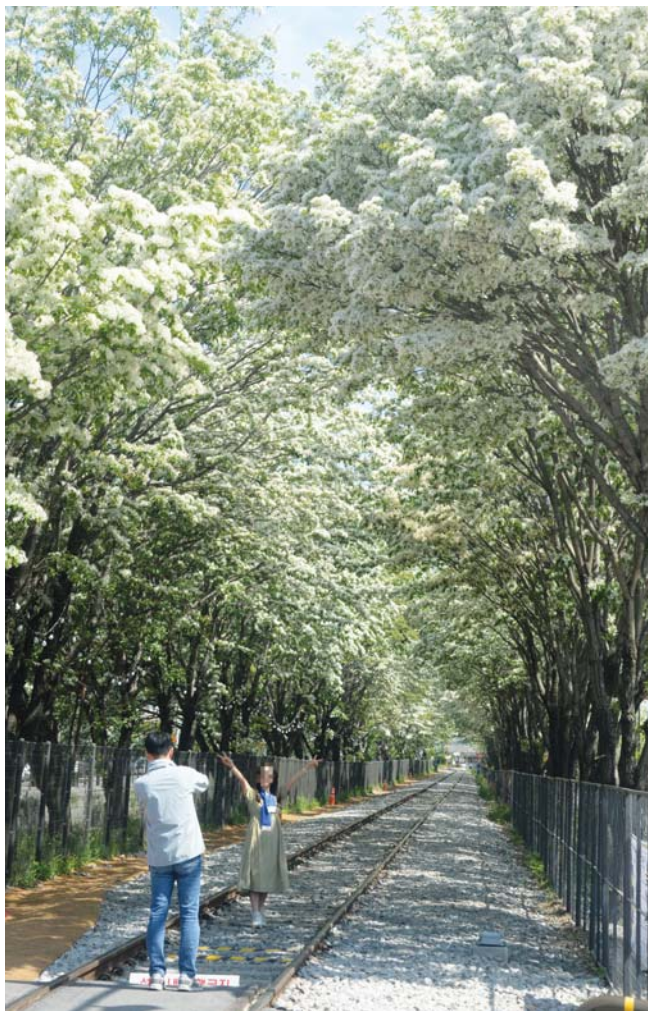
또 식품업체의 매출액은 2004년 1조 4,622억원으로 전국 33조 1,81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였던 것이 2014년엔 5.4%, 2023년엔 6.3%가 되었다.

이는 기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창업기업 유입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백승하 농식품산업과장은 "농생명 창업기업이 겪는 다양한 성장 장벽을 해소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이 유망 창업기업들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봄과 어울리는 이팝나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옆 철길에 이팝나무가 만개해 있다.

## 올 하반기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복합개발' 착공

자광, "아파트 분양가 평당 2500~3000만원 내외 유력... 2030년 준공이 목표"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중인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사업비 6조 2,000억원)과 관련, 분양가와 분양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주)자광이 전주시에 마지막 사업허가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지난 달 신청한 가운데 종합적인 방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주)자광(회장 전은수)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차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전주시와 사업 시행협약 체결과 함께 올 3월 통합심의(도시, 건축, 교통, 경관)를 완료하는 등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광측은 오는 7월까지 전주시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곧바로 현재 협의중인 시공사와 아파트 시공과상가, 쇼핑몰, 타워(470m 관광전망타워)등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중인 시공사는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1군으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4~5개 업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양가는 각종 분야 전문가들이 분양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수요자 여론 등을 감안,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가 유력한 것으로 자광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광측은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5년 만에 공급되는



구 대한방직 부지에 세워질 관광타워 조감도.

〈사진=자광 제공〉

중대형 평형대에도 뛰어난 입지조건, 단지내 복합쇼핑몰을 갖춘 생활편의성과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개공지 공원, 아파트브랜드가치, 공사의 조건 및 원가상승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전주시 감나무골은 평당 분양가 1,400만원, 기자촌 1,500만원대를 계산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상 상승한 수치로 보여 실질적인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자광측의 분양가 예상가는 아파트 내부 확장이나 다른 옵션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광측의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를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받기 때문에 전주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올 9월 모델하우스를 통해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아파트와 쇼핑몰 타워공사를 동시에 착공해 총 공사기간 60개월을 잡아 오는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다.

국내유일 최적입지, 환경 친화적

진안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가 우리지역에 건설되면

첫번째, 우리군 살림살이가 좋아집니다.

두번째, 각종 혜택이 우리지역에 돌아옵니다.

세번째, 우리지역이 관광명소가 됩니다.

양수발전소 유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군민여러분!

진안군 미래 성장동력 양수발전소 유치에 동참해 주십시오.

진안군

한국동서발전주

## 극한 환경 견디는 배터리에너지 공동 개발

전기안전공사·삼성 SDI, 고신뢰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협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BESS)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국내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계 다양한 운영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한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으며,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해 올해 386억원 규모의 국가연구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와 협업을 통해 극한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의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우리 공사에 구축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BESS 개발 등을 토대로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